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9일 금요일 (음 8월 9일)

제164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8일 오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총회 이사회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부 대표회장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성료

‘지역의 문화, 지역발전 경쟁력’ 확인

지방소멸위기·지역생존 전략 논의
기후변화 따른 지구촌 위기에 공감
전북 선언문, 새 도시 어젠다 작성에 기여

군산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전북 총회는 32개국 680여명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오는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에서 채택할 ‘새로운 도시 어젠다’에 대해 논의한 지역 회의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지방소멸위기와 지역생존 전략’을 주제로 한 가타야마 요시히로 교수의 기조연설은 모든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면서 국내외 많은 지방정부의 관심이 집중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리앉는 섬, 물디브와 키리바티의 위기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예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인 ‘새로운 도시 어젠다 : 지역, 생명, 문화’에 대한 회의결과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결의한 ‘전북 선언문’은 ‘새로운 도시 어젠다’에 관한 UCLG 글로벌 문서 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행사 마지막 날인 이날 향후 2년 동안 활동할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의 집행부 및 이사회 임원, 회장 선거 등이 진행됐다.

이에 도는 2014~2016년에 이어 연속해서 이사회로 선정됐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UCLG ASPAC 차기 회장으로 연임 선출됐다.

도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지역 발전의 경쟁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대안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도의 핵심사업인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 새만금 등을 아태지역 32개국 138개 도시에 홍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함으로써 세계 선진지방정부로 나아가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남태평양의 키리바티 등 여러 나라와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함으로써 세계 선진지방정부로 나아가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남태평양의 키리바티 등 여러 나라와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함으로써 세계 선진지방정부로 나아가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남태평양의 키리바티 등 여러 나라와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만금 7조 투자협약 면담 무산

삼성의 ‘비공개’ 면담 요구에 전북도는 ‘거절’
5년전 협약 진상규명·상생방안 모색 ‘물건너’

7조원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삼성그룹 고위층이 전북도지사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맞서는 바람에 면담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규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8일 도청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날 말 즈음에 만날 예정이었으나 삼성 측이 비공개 면담을 요구해 불발로 끝났다”고 밝혔다.

5년 전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협약했던 삼성 측은 최근 이를 철회한 배경과 새로운 투자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면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 삼성 측과 공개를 주장한 전북도가 접점을 찾지 못해 면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 부지사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면담 계획은 그동안 송하진 도지사가 여러 차례 삼성의 고위층을 만나고 새만금 투자를 요청하는 친서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 전달한 데 따른 삼성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면담이 무산되면서 5년 전 삼성의 갑작스러운 투자협약 체결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과 새만금지구에 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투자를 삼성에

청한 전북도 제안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형규 정부부지사는 “면담을 통해 갑작스러운 투자계획 발표의 진실과 실제 투자를 철회했는지 등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면서 “당시 투자협약에 대한 진실은 전북도민이 꼭 알아야 할 사안인데도 일류기업 삼성이 왜 비공개로 고집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확보한 5년 전 투자협약 당시의 (협약 당사자들의) 세세한 대화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실을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업부, 지식경제부, 전북도와 함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새만금지구 11.5㎢(350만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간

에 걸쳐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1차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6,000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 3단계 투자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면 투자 규모가 20조원을 넘고 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곳곳에 축하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삼성은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새만금 임원들을 전북도에 보내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고민형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사랑으로 이뤄낸 큰 축복... 건강하게 자라다오’

고창 분만산부인과 개원 후
2개월여 만에 첫 아기 출생

고창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분만산부인과가 고창종합병원에 개원한 후 2개월여 만에 첫 아기가 출생했다. 그 주인공은 고창읍에 거주하는 김모씨 부부의 첫째 아들로 3.7kg의 건강한 모습으로 최근 고창 분만산부인과에서 출생했다. 아기는 자연 분만으로 태어났으며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한 상태다.

김씨 부부는 “출산을 위해 멀리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분만하게 되어 훨씬 편한 마음이었고 좋았다”며 “많은 관심 속에 환영 받으며 태어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분만산부인과 개원 이후 첫 아기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다복한 환경 속에 행복



고창 분만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출산을 축하하는 선물로 속삭개와 보은병, 신생아 아기띠 등을 지급했으며 고창종합병원에서는 첫 아기 출생기념으로 임신부 병원비 무료, 유모차와 유아용품 등을 제공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의 푸른인증
탑마루
TOPMARU 익산
한가위 선물대잔치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마운 분들에게 익산의 푸른인증 탑마루 선물세트로 진심을 전하세요~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입처: 탑마루 쇼핑몰 www.topmaru.net (063-838-6079)

익산시